

“혹시 ‘경도’세요?” 광주서도 한밤중 술래잡기 열풍

<경찰과 도둑>

‘당근’ 통해 모인 10~30대 30여명
남구 유안공원 일대서 놀이 삼매경
“익명에 관계 부담 덜고 동심 즐겨”
부상 등 안전사고 위험 주의해야



“당근 보고 왔는데요. ‘경도’ 맞죠?” 지난 3일 오후 8시50분께 광주 남구 유안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찾은 A(31)씨는 앞서 모여 있던 이들에게 이 같이 물으며 무리에 합류했다.

영화 2도의 추운 날씨 속 롱패딩과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30여명의 나이는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했고 학생, 교사, 자영업자 등 직업도 각양각색이었다.

오후 9시정각이 되자 이들은 술래 한 명을 뽑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했다.

술래가 “무궁화 꽃아~”를 외치자 앞으로 달려나가던 참가자들은 “피었습니다”라는 외침에 일제히 멈춰 서길 반복하며 동심(童心)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후 쫓는 경찰과 쫓기는 도둑으로 편을 나는 이들은 ‘경찰과 도둑’ 게임을 진행했는데, 뛰어다니

지난 3일 오후 9시께 광주 남구 유안근린공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모인 30여명이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 양 끝은 당근마켓에 개시된 경찰과 도둑 참여 모집글.

며땀을 흘린 턱에 외투를 벗어던지기까지 했다.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처음보다 서로를 편하게 대한 이들은 ‘얼음땡’과 ‘마파이’ 게임 등 ‘추억의 놀이’를 이어갔다.

오후 11시30분께 마파이 게임을 마지막으로 이날 모임이 끝나자 참가자 중 일부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대부분은 짧은 인사를 뒤로하고 ‘쿨하게’ 자리를 떠났다.

경찰과 도둑이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

음땡, 마파이 등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주로 했던 놀이를 처음 보는 이들과도 함께 즐기는 이

같은 모임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4일 기준 당근을 통해 광주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는 ‘경찰과 도둑’ 관련 모임은 22개로 파악됐다.

이 중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모

임은 개설 10여일 만에 가입자가 1천600명을 돌파했다.

유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13개나 됐고, 전체 참여자는 150명을 넘겼다.

모집 게시글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들어진 모임의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르는 사

이더라도 편하게 뛰어 놀자는 취지는 동일했다.

전날 유안근린공원 모임에 함께한 김선경(31)

씨는 “어린 시절 유행했던 놀이들이 그리워 나

왔다”며 “익명 덕에 모임에서 신경써야 하는 다른 부담이 적어서 좋다”고 말했다.

모임을 주관한 김동현(32)씨는 “다른 모임에서 몇 차례 경험해 본 뒤 친구들과 직접 해보고 싶어 주최하게 됐다”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이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고, 취업 준비와 사회 적응으로 지친 사람들이 추억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야외 활동이다 보니 부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존재했다.

실제 모임의 주관자는 목발을 짚은 채 나타나 “지난달 경도 모임에서 다쳐 오늘은 진행만 맡았다”며 “과열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익명 채팅방에 들어와서 본래 취지와 무관한 광고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다른 구성원과 불화를 빚는 이들도 종종 목격됐다.

이와 관련, 당근 측은 “모임을 사용하는 모임과 멤버 모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며 “특정 주제 도배글이나 광고·홍보를 포함한 영리 활동 등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걸 발견했다면 검토 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상 기자

전직 베트남 경찰 ‘유학생 허위 잔고증명’ 재판대에

송금 명의 바꿔 체류자격 연장 도와
검, 징역 1년6개월 구형…15일 선고

경찰 생활을 마치고 유학 온 한국에서 다른 유학생들의 ‘허위 잔고 증명’을 돋고 수수료를 쟁기 베트남인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 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베트남 경찰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학

생 36명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잔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유학생은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려면 예금 잔고 증명서를 통해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과정에서 자금 출처는 부모 또는 가족 등 국외 조달이 원칙인데, A씨는 송금 명의를 바꿔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날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

아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4대 6으로 나눠 실제 취한 재산상의 이득은 150만원 정도”라며 “불법적인 행동이란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유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이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오래 살 마음이 있다”며 “용서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A씨에 대해 선고할 계획

/윤찬웅 기자

광주 북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불…3명 중상

새벽 시간대 광주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3명이 다치고 수습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2분께 13층 규모의 북구 운암동 소재 아파트 5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약 1시간 40분 만인 오전 5시43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부부와 친

인척 관계인 A(50대)씨 등 3명이 연기 흡입과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외 중·상사자 등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주

민 80여명이 대피했고 5명은 현장에서 연기 흡입에 따른 응급 처치를 받았다. 세대 내부 전부를 전소시킨 화재는 거실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방화 관련 혐의로 입건한 A씨가 입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

/윤찬웅 기자

공군 광주기지 T-50 훈련기 전복

엔진 경고등에 비상 착륙하다 사고

공군 광주기지 소속 T-50 훈련기 비행 훈련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36분께 T-50 훈련기가 광주기지로 비상 착륙하다 전복됐다. 사고 훈련기에는 교관 1명과 학생 조종사 1명 등 총 2명이 태고 있었으나, 다행히 별다른 외상은 입진 않았다. 다만 정밀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비행 훈련을 하던 탑승자들은 엔진 경고 등이 커지자 비상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활주로에 공군 광주기지 소속 T-50 훈련기가 전복돼 있다.

/연합뉴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다.

/안재영 기자

광양서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 발생…울겨울 전남서 3번째

광양시에서 한랭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해 울겨울 전남 지역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4일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2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께 광양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숨진 80대 여성이 한랭질환 추정 사망

/서형우 기자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모두 가능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